빨주노초 4색 마음

막4:1~20(14~20)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빨주노초 4색 마음'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빨주노초 4색 마음!
빨강 마음이 있고, 주황 마음이 있고, 노랑 마음이 있고, 초록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 시키면 그 프리즘을 통해서 햇빛의 굴절이 일어나는데, 햇빛 속에 들어있는 색깔의 파장에 따라서 일곱 가지 색깔의 띠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그러지 않아요?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 일곱 가지가 띠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격을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색깔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을 통과시키면 일곱 가지 색깔이 아니라 네 가지 색깔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바로 빨주노초 4색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빨강 마음이 있고, 주황색 마음이 있고, 노란색 마음이 있고, 초록색 마음이 있는데, 빨강 마음은 말씀을 길가 밭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 마음은 말씀을 돌밭으로 대하는 것이고, 노란색 마음은 말씀을 가시밭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마음이 바로 말씀을 옥토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색깔별로 마음을 말씀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그 특징을 이야기 하자면 (제가 색깔의 뜻을 만든 겁니다), 빨강 마음이다 그러면 천국말씀이 들려올 때 천국말씀에 Red Card를 제시해 버립니다.
Red Card 가 뭐에요? 축구를 할 때 22명이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시합을 하는데, 너무 반칙이 심할 경우에 심판이 Red Card를 내밀면, 그 축구경기장에서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말씀이 들릴 때 말씀 속에 들어 있으면서 내게로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서 아예 Red Card를 제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마음은 주황색이라는 게 불 색깔이에요.
촛불을 보면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 주황색이 불 색깔이에요.
돌밭이 어떤 밭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석회암 암석층으로 돼있는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밭입니다.
햇볕이 나게 되면 이 돌이 열에 달궈지면서, 다른 지역의 흙보다도 그 암석 위에 있는 흙이 따뜻합니다.
더 따뜻하니까, 씨가 떨어지면 더 빨리 자라는데, 문제는 돌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이 더 뜨겁기 때문에 더 빨리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씨를 열기로 뜨겁게 태워 죽이는 것이 주황색 마음입니다.
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마음은, 가시밭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기는 하지요, 돌밭도 수용을 하기는 하되 얕게 수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시밭도 수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가시와 잡초가 같이 자라면서 마음의 기운을 다 뺏겨버려요.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이래서, 아니면 과로가 심해져 가지고 그 과로가 겹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노래집니다, 충격에 의해서 상심이 크거나 과로에 의해서 기운이 탈진 될 때에 하늘이 노랗다고 얘기해요, 기운이 탈진된 상태입니다.
천국이, 천국의 기운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처럼, 천국이 노랗게 기운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합니까? 제가 막 그냥 갖다 꿰맞추는 건데… 그래도 색깔을 딱 생각하면, '아! 하늘이 노랗다, 기운이 싹 빠진 걸 말한다.'
천국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기운이 싹 빠져 가지고 천국이 자랄 수가 없는 마음, 노랑 마음입니다.
천국의 씨가 불타 죽을 마음, 열 받아서 죽는 마음이 주황마음입니다.
주황색깔이 열 색깔이니까.
빨강마음, 천국을 완전히 Red Card로 추방 시켜 버립니다.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주황 마음과 노랑 마음은 받아는 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색깔별로 마음을 정해놓고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데, 옥토! 좋은 밭, 초록색 밭.
뭐 요즘 전 세계의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녹색입니다.
어떻게 녹색을 보존하느냐? 어떻게 녹색성장을 이루어 내느냐?
어떻게 녹색 에너지를 만들어 내느냐? 녹색에너지가 뭡니까?
기름을 태워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라든지, 물을 통해서라든지, 퇴비를 통해서 가스를 얻는다든지 하는 유기적인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얻는 에너지, 이게 녹색에너지입니다.

녹색이 화두가 돼있어요.

풍요롭고 평강하고 생명이 있는, 이 녹색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천국에 대해서 녹색마음이라는 것은, 자!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할 때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얘깁니까? 때가 찼다는 것.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 타이밍이 됐습니다.
무엇을 위한 타이밍?
천국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그 동안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분으로써, 보좌를 펼치고 앉아계신, 천사들이 있는 그 천국이 그냥 예고만 되어있고 먼 산 강 건너 불 보듯이 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가질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4차원의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져가게 자리 잡게 되고,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되는 타이밍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옥토라고 하는 것은, 천국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천국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와는 다른,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계시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곳으로 내 마음이 갈 수 있고, 그 천국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지금 같은 얘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천국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천국이 실재한다고 믿는 것이고, 그 사실에 내 마음을 주면 현실이 됩니다.

사실+마음이 현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기 스페인에서 어떤 도둑놈이 은행을 털었다.
뉴스에 보도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천국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로 느끼면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서 천국을 진짜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

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소망하고, 소망한다는 게 뭐에요? 천국이, 천국의 말씀의 씨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거나 천국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가득~차게 됩니다.
이거 옥토 얘기하는 거지요?
내 마음이 가득~차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되고 바라지 않게 됩니다.
이때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만큼 천국으로 만족하게 되고 채워졌을 때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옥토의 상황이 신앙의 전격적인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빨강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옥토의 마음에 준해서 볼 때, 길가 밭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 스페인 은행 강도사건처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내 삶의 공간에서 천국에 대해 Red Card를 제시해 버립니다.
천국!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길가밭들이 있어요.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의 공간 안에서 이 기간 동안은 이 시간의 구간 안에서는 천국에 Red Card를 제시해 버립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보자! 후반전에 뛰어라!
Red Card를 제시해 버려요, 현실이 아닌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
지금 오늘 사는데,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사업상의 일로 바쁜데, 전혀~ 천국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끼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Red Card를 제시해 버린 겁니다.

현실 추방! 천국은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아니다!
분명히 주님은 '때가 찼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이 천국을 가지고 누릴 타이밍이다'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은 어떠냐 하면 천국에 추방, Red Card,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라,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다음 게임에 보자, 다음 세상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나 관계할 것이다.
이게 바로 길가 밭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천국! 아 4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4차원의 세계가 실제로 내 마음에 느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느껴질 수 있다. 마치 이 세상을 육체가 있으므로 내 마음이 느끼듯이, 육체대신에 성령님께서 감각기관의 역할을 해 주심으로써, 내 마음이 천국을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야!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좋다, 천국 좋다, 나도 천국 갖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천국을 갖는데 왜 박해와 환란이 일어납니까, 천국을 갖는데…
이 주황색마음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환란과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나, 우리나라에 1800년대 말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있었던 그러한 박해도 물론이려니와 그런 박해가 아니라도, 태평성대에 복음을 받아들여도 반드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천국말씀이 들어가서 그 천국말씀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돌밭! 이미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갖고 있어도 정말 책상서랍에 들어있는 언제 생기고 언제 내 것이 됐는지도 모르는 볼펜처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철석같이 붙어 있는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지금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마음을 붙이고 있는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내나 남편이나 애인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그 누구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마음을 붙이고 있는 것,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안에 있는 것들인 한에 있어서는 다 떼 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검을 줍니까? 내 마음이 붙어있는 모든 인연과 관계를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천국말씀을 접할 때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때가 찼어요,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 안으로 마음이 들어오려면 마음 안이 완전히 비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무엇엔가 붙어있고 무엇을 담고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에요.

25년 만에 난 아들 이삭도 베어버려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본토 아비집도 베어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베어버려야 되고, 아들 이삭도 베어버려야 됩니다.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주어지는 겁니다.
있는 것이 없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 중에 마음 붙이고 있는 것들, 그 마음 붙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돌입니다. 돌,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담겨져서 들어온 천국이 확장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게 달라 붙어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천국은 열 받고 그냥 그 말씀의 씨앗자체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부자청년 같은 거예요.
이미 돈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가 네 것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음에서 떼 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에서 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돈에 붙이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마음을 채우고, 돈은 아버지의 뜻대로 쓰면 됩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거기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식! 마찬가지고, 일! 마찬가지고,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버리지 않으면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주황색, 열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씨가 말라서 죽어요, 말라서 죽어, 뭔가가 좋아서 마음이 붙어있으면.
그러면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처럼 똑같이 수용하긴 수용해요.
길가 밭은 아예 Red card였는데, 이 마지막에 가시밭은 돌밭처럼 수용은 하기는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뭐냐 하면, 가시나무와 잡초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기운을 뽑아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씨가 기운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운이 쇠잔했을 때 하늘이 노랗다는 것처럼, 천국이 자라려면 마음이 다~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기운들이 다른 데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돌밭과 비교해서 구분을 하자면, 돌밭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에 마음이 붙어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 가시밭은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이 세상의 경계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결핍을 느끼면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세상적 욕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염려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지려 그러고, 새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되려면, 이 노랑 마음이 아니라 초록 마음이 되려면, 천국의 씨앗이 기운을 뺏겨 버리면 안돼요.
하늘이 노랗다, 천국이 노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기운들을 다 다른 데로 뺏겨버려요.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로님 선거가 있으면 이래저래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뭐가 많~아요, 많아요.
모~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결핍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게 말씀을 받은 자가 옥토가 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 결핍증, 마음의 갈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천국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식 아이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아, 자식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식을 잘 키워기 위해 자식과 씨름하고, 자식을 그냥 달달 볶아 가지고 내 마음에 만족하려 하지 말고, 천국으로 자식 때문에 빈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애인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마흔 살 되는 나이가 되도 연애 한번 못해봤습니다.
아! 갈증이 납니다, 사랑의 갈증이 납니다.
이때 그 어떤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옥토의 자세입니다, 옥토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다시 말해 결핍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모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백가지 결핍이든 천 가지 결핍이든, 만 가지 결핍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복음인 것, 기쁨의 소리인 것은, 그 모든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우면, 채우고 보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돈이 전혀 갖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랬는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 받고 출세하는 것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이 집에 있는 소고기 구워서 먹고 배부른 다음에 짜장면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희가 백 가지 결핍을 느끼느냐? 천 가지 결핍을 느끼고 그걸 이루고 싶어 하느냐? 노랑마음이 돼서 천국에 대해 하늘이 노랗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느낀 백가지 결핍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결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기 시작합니다.
내 결핍을 따라, 내가 느끼는 결핍감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결핍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가시밭입니다.

자! 빨주노초 4색 마음, 이중에서 한 사람이 네 가지 마음을 하루에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에 대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초록색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말씀 앞에서 오로지 초록색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천국이 실제로 내 마음 안에 확장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하옵나이다.
아멘!